이장섭 · 방송과 기술 기자

+ 김승원(Christian Dior 인터내셔널 아티스트) – 크리스찬 디올을 떠나서도 인정받는 메이크업아티스트가 되고 싶다

김승원(Christian Dior 인터내셔널 아티스트)

크리스찬 디올을 떠나서도 인정받는 메이크업아티스트가 되고 싶다

남자가 봐도 멋지다

회피와 기대

제가 메이크업을 시작 할 당시에는 남자가 메이크업을 하는 인원이 손 안에 꼽힐 정도였어요. 그러다보니 반응이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야, 남자가 무슨 메이크업이야?"라는 회피의 시선과 "남자는 무언가 다를 것 같은데..."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물론, 회피의 시선이 더 강하게 다가왔는데 남자가 하면 메이크업을 안 받겠다는 여성분들도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성에 대한 차이와 호기심에서 오는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어요.

고객은 실력자를 원한다

여성들의 호기심이 증가하면서 남성에게 메이크업을 받겠다는 고객들이 증가했어요. 그러면서 남성 아티스트들을 상당히 많이 뽑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장 업계가 성숙해지고, 고객의 눈이 높아지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실력이 중요하게 됐어요. 남성이라고 해서 여성보다 메이크업을 못한다면 오히려 평가는 안 좋았죠. 이제는 남자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주목받던 시기는 지났고, 성별을 떠나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이 인정받고 있어요. 세상을 호기심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실력이 없다면 도태되는 과정을 겪는 것이죠.

이장섭 · 방송과 기술 기자

+ 김승원(Christian Dior 인터내셔널 아티스트) – 크리스찬 디올을 떠나서도 인정받는 메이크업아티스트가 되고 싶다

자기 얼굴에 메이크업하는 남자

강의를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아티스트를 양성하는 곳은 내가(아티스트) 누군가에게 메이크업해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메이크업아티스트들은 내가 남에게 해주는 메이크업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메이크업은 일반인들이 아티스트들의 기술을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잘하네." 한마디 하면서 그냥 보고 말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 여성들은 화장을 스스로(혼자) 하거든요. 이들에게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면 스스로 잘 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다보니까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말로만 했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지만 제 얼굴에 메이크업을 하면서 시범을 보인 거죠. 현실에 맞게 스스로도 쉽고, 빠르고, 예쁘게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고 알려준 것이죠.

실력 향상과 주목

메이크업을 시작 할 당시 연습을 위해 제 얼굴에 메이크업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학원이 무한정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모델이 저를 위해 항상 기다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제 얼굴을 모델삼아 메이크업을 연습하면서 예쁘게 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터득하게 되었어요. 인상 쓰지 않고 메이크업하기, 거울 보는 법, 손의 터치, 색조 혼합 등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기술들을 습득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남에게 해주는 스킬과 내가 나에게 하는 스킬이 일치하게 됐어요.

아티스트들은 남에게 해주는 방법을 익히다보니까 실제 남에게 해주는 방법과 스스로에게 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 저는 두 방법이 동일했고, 그 방법으로 쉽고, 빠르면서도 심플한 메이크업을 제 얼굴에 하면서 보여줬던 것이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메이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손가락으로 컬러를 믹스하여 표현되는 시간이 3~5초 정도로 속도가 빠르면서도 완성도가 높은 메이크업이 나오는 것이죠. 브러쉬도 사용하지만 손가락을 이용하여 색감을 연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바른 자세와 즐거운 대화가 필요하다

아티스트들에게는 "고객이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표현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라고 하고, 하나 더 아티스트의 격을 떨어뜨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지요. 메이크업을 하는 자세나 손의 터치 등이 정말로 중요한데, 이를 관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자세가 바로 잡아짐으로서 많은 고객을 응대하더라도 편안하고 에너지를 최소화하면서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죠. 그리고, 시각적으로 고객들이 저 아티스트에게 메이크업을 받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도록 자세를 갖추도록 하죠.

고객을 위한 메이크업은 고객의 마음을 표출해 낼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하려면 고객으로부터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정보(헤어, 의상, 피부 톤 등)를 분석하고, 편안하면서도 즐거운 대화가 필요해요. 헤어와 의상이 바뀌는지, 어떤 성격의 모임인지, 평상시 선호하는 스타일은 무엇인지 등 즐거운 대화가 계속됨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아티스트는 제안한다

여성들은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한 시기가 되면 스스로 메이크업을 하기 시작하죠. 이 말은 누구나 한다는 뜻인데, 아티스트가 고객이 해달라는 데로 그려주거나, 특정한 제품을 얼굴에 담아내기만 한다면 그건 아니죠. 그렇다고 자기 스타일대로 해주고 잘 됐다고 평가해버리면 이것도 아니죠. 진정한 아티스트는 고객에게 제안하고 함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아티스트는 고객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제안 할 수 있어야 하고,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인상 쓰지 말고 화장하자

"메이크업을 정의한다면?"이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질문에 "여성들 속에 숨은 아름다움을 꺼내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한 메이크업이 매일 인상을 쓰게 만든다면 모순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메이크업을 하는 여성들에게 인상 쓰지 않으면서도, 예쁘게 표현 될 수 있는 메이크업 방법을 알려주었죠. 예를 들어, 눈에 화장을 하려면 한쪽 눈을 감게 되는데 대부분 인상을 써요. 이 경우는 거울 활용법을 조금만 알면 금방 고쳐져요. 거울을 밑에 놓고, 고개를 들고 눈만 아래로 살며시 내려다보면 인상 쓰지 않고도 쉽게 메이크업이 가능해요. 단순하게 표현의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예쁘게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죠. 과정이 결과물도 아름답게 하거든요.

이장섭 · 방송과 기술 기자

+ 김승원(Christian Dior 인터내셔널 아티스트) – 크리스찬 디올을 떠나서도 인정받는 메이크업아티스트가 되고 싶다

제품의 선택

크리스찬 디올의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디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러면서도 다른 제품들도 비교 분석을 위해 사용해보죠. 어떤 제품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해야 된다는 논리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신의를 잃게 되거든요. 그럼, 저는 무엇을 하냐면, 디올의 제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죠. 그렇게 발견한 기법들로 직원들을 교육하고, 고객에게도 제안하죠.

만족감이 밀려올 때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계통의 사람들도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요. 남들과 똑같은 일반적인 방법이었을 때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해요. 나만의 기술과 표현의 방법이 만들어지면서 만족감을 느끼지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만들어 낸 컬러 사용법이나 터치하는 방법들이 디올 내부적으로 인터내셔널 가이드라인이 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저만의 특별한 색깔을 갖고, 남들과 방법이 달라지면서 다르다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인정도 받고, 만족감도 얻게 됐어요.

수많은 미사어구가 이 남자의 멋을 가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을 읽고 있는 듯 바라보는 눈동자, 단정하다는 느낌의 정돈 된 수염.
질문에 깊이 생각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확신을 던진다.
이 남자, 남자가 봐도 멋지다.

피부색에 따른 메이크업

메이크업을 하다보면 전반적으로 공연이나 무대를 위한 메이크업은 유럽의 아티스트들이 잘하고, 일반 대중을 위한 메이크업은 아시아의 아티스트들이 잘해요. 메이크업을 인종별로 구분해보면 백인은 모공이 넓고 털이 많아서 그렇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흑인 여성은 정말로 어려워요. 피부가 워낙에 검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선택부터 난감하죠. 흑인의 색깔은 골드브라운, 브라운, 다크브라운으로 크게 나뉘는데, 쉐도우나 립스틱, 볼터치 등의 컬러를 선택하기도 난해해서 처음에는 정말로 애먹었어요. 메이크업을 해놓고 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하다가 지우고 새로 한 적도 있었어요. 흑인들의 메이크업은 많은 경험과 노력이 필요해요.

일상에서의 습관

여성을 전체적으로 오래 쳐다보는 습관이 있어요. 얼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의상부터 헤어스타일까지 전체적인 모습을 봐요. 그분들의 스타일을 고쳐주려는 것보다는 요즘 여성들이 어떻게 메이크업을 하고, 헤어와 의상을 어떻게 조화시키는지를 보기 위함이죠. 일상의 시각 정보를 통해 대중의 흐름을 분석해보는 것이죠. 그 상황을 하나의 사진처럼 찍듯이 기억해요. 그래서, 오래 쳐다보는데, 여성분들이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변화는 진행 중

디올에 13년간 있으면서도 나의 실력과 노력이 디올과 잘 맞았던 것이지 직장인이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디올에 있는 동안은 꽃이 피었다기보다는 꽃을 피우기 위해 봉오리를 팽창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디올을 그만두더라도 진정으로 인정받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김승원에 신뢰하며, 제 이름을 걸고 장도 운영해보고 싶고, 아티스트들도 양성해보고 싶고, 제품도 만들어 보고 싶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아직도 꿈만 꾸고 있네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키워 갈 것인지는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아직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그 꿈을 위한 변화는 앞으로 진행되겠죠.